

의안번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420회)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년 월 일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년 월 일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 이유

- 최근 국내 한우산업은 사료비의 폭등과 한우 경락가의 폭락으로 농가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높은 소비자가와 저가의 수입 소고기의 유통으로 인해 한우는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
- 정부의 대책으로 '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융자금 이자의 부담과 사료구매자금 상환의 시작은 농가의 경영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한우농가의 경영난이 한우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이번 한우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사료구매자금 지원의 금리인하 및 일시상환 연장 추진과 국내 한우농가 경영부담을 완화를 위한 한우 생산비 절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함

□ 불 임 : 건의안

- 보낼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최근 국내 한우산업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열악한 생산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사료비의 폭등과 한우 경락가의 폭락으로 농가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높은 소비자가와 저가의 수입 소고기의 유통으로 인해 한우는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3년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우농가의 순수익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 1마리를 키워서 팔면 ‘22년에는 약 74만원, ‘23년에는 143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하락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축산농가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생산비 측면에서 사료비는 한우농가 경영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큼니다. 그런데 국내 사료용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쟁여파, 이상기후, 국제유가 급등 등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었고 연쇄적으로 사료값 역시 상승하였으며, 결국 한우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축산농가에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5차례 사료가격을 인하하고 '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를 출하할수록 손해가 증가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조건인 1.8%의 이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최소 2년 동안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한우 가격 약세지속으로 농가의 소득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융자금 이자의 부담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의 시작은 농가의 경영 불안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우농가 경영불안이 지속될 경우 국내 한우산업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우농가의 경영난이 한우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이번 한우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한우농가 경영 안정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사료구매자금 지원의 금리인하와 일시상환 연장을 추진하라.

하나, 국내 한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한우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라.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